

장마철 앞두고 재난취약시설 점검

도, 24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재난정보문자알림 대상자 확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가운데 태풍과 집중 호우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교량 등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15일 전북도와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난취약 시설물(D·E급)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에서 내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민관합동점검반은 재난취약시설물(D·E급)의 현장관리 상태 및 구조 안전성 등 재난취약시설물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게 된다.

최근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8개 부처가 전국 자치단체의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북지역에서는 미흡 사항 37건이 지적된 바 있다.

전북도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행동 매뉴얼에는 저지대 침수지역 주민 대피 계획이 없고, 시간대별 강우량 예측자료 등 단체장이 판단해야 할 근거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 나포지구 배수 개선사업 관련 양수장 터파기로 인한 붕괴 위험도 제기됐다.

또 장수군은 수방 자체별 확보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응급 복구 장비 지정 규모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은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교량 기초 시공 단계에서 절개지를 정비하지 않아 사면 유실 등이 우려됐다.

1차 점검에서 기관별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기관당 2~3곳의 표본을 선정해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도는 재난정보, 기상특보 사항 및 국지적 위험사항 등 재난정보의 신속한 제공 및 도민의 안전한 생활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정보 문자 발송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은 수신자가 휴대폰에서 문자 수신을 동의해야 재난 정보가 수신되며, 자동문자음성통보시

스템은 대부분 공무원, 통리반장 등 국한적으로 전파되고, 안전디딤돌 앱은 재난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자가 앱을 직접 설치해야 하는 등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민간에 활달과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을 재난정보 수신대상 그룹에 추가 지정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 기상특보발령, 국지적 위험사항 등 재난정보를 알리는 재난정보문자알림시스템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은 "사회 곳곳에 재난 위험이 날로 높아지고 특히 오존, 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 및 기상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시간 맞춤형 재난정보의 제공으로 도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우산 행렬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여름비가 내린 15일 오후 어느 대학교 교정에서 우산을 쓴 학생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전북지역에는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더민주 당내 자치단체장 장외투쟁 놓고 시각차

(이재명 성남시장)

당 지도부, 단식중단 권유 · 여성위원회, 이재명 시장에 힘 보태
정부 지방재정 개편계획 반대하면서 당 차원 해결엔 공감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재명 성남시장 등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장외투쟁에 대해선 대응 수위를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관련사건 3면>

더민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공동위원장 박영선·박원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방재정을 하향 평준화하고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 개혁안을 우리 당의 광역·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박근혜정부가 지난 4월 일방적으로 발표한 '조정교부금 배분 형식을 변경해 불교부단체 우선 배분을 폐지하고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한다'는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주권을 꺾어버리고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반자치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중앙정부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합리적 조정'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보통교부세 교부를 상향'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조치'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다만 7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는 더민주 소속 수원·성

남·화성시장들의 단식투쟁을 놓고는 당내 시각차가 있어 보인다.

더민주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을 찾아 단식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방문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더민주 여성위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지자체의 가용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등 여성·가족 등 복지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되고 결국 지방재정과 복지수준 등이 하향평준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 시장에게 "중앙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인해 복지정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까 많은 여성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한다"며 "국회와 당 차원에서 지방재정 개편안의 합리성을 제대로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당 지도부는 이날 이 시장 등에게 단식중단을 권유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과주 입진각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당에서 이제 할 테니까 (이) 시장이 몸이 상해가면서 (단식을) 하지 않도록 당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박용진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제도적으로 접근해야지 사회 이슈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김 대표는) 시장이 충분히 문제제기를 했으니 이제는 법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정부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민영화 논란 등 부작용 가중"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기능조정안에 대해 "헛갈 매각, 특허 의혹, 민영화 논란, 내부 반발 등 많은 부작용과 역효과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지 말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전력 판매경쟁은 국민 부담은 증가하고 소비자 편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며 "해외와 여건이 상이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기능조정 일환으로서 판매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개편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에너지 공공성과 에너지 안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진수 기자

여교사 10명 중 7명 '성폭력 경험'

여교사 10명 중 7명은 교직 생활 동안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 10~12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여자 교사 1758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전라남도의 섬마을에서 발생한 교사 성폭행 사건 관련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다.

16일 전교조에 따르면 교직 생활 중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서 피해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한 여교사의 비율은 29.3%에 불과했다. 반면 응답자 70.7%는 여러 형태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을 갖고 있었다.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던 피해 경험은 술 따르기, 마시기 강요(53.6%)였으며, 상대적으로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피해 경험이 많았다. /박용주 기자

군산기계공고 4개학과 폐교

도교육청, 내년도 고교 학과 개편 · 학급 감축안 발표
전주예고, 국악 등 4개 폐지 · 디자인미술 등 2개 신설

전북도교육청이 군산기계공고 4개 학과를 폐교하는 등 '2017년 고등학교 학과 개편과 학급 감축안'을 발표했다.

15일 전북도교육청이 발표한 개편안을 보면 군산기계공고는 자동차기계과와 기계설계과·조선산업설비과·선박전기과 등 4개 학과를 폐지하고, 기계과와 전기시스템제어과 등 2개 학과를 신설한다.

또한 전주예고에는 국악과와 미술과·방송문화예술과·무용과 등 4개 학과를 폐지하는 대신 디자인미술과와 공연예술과를 신설했다.

진경여고도 중국어과와 일본어과를 폐지하는 대신 국제무역과와 경영사무과를 신설한다.

남원 용성고도 토목조경과와 전자기계과를 폐지하고, 농업토목과와 식물자원과·전자로봇과·자동차기계과 등 4개 학과를 신설한다.

남원국악예술고는 방송연예과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정읍제일고와 설천고·왕선여고·인상고·김제고 등 7개 학교의 9개 학급도 감축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학과 개편을 인가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한국 청소년 동아리연맹
청소녀가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제15회 교육감배 전라북도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2016년 6월 18일(토) 오후 2시
 전주바울센터 2층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130)

- 주 최 :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
- 후 원 : 전라북도교육청, 전주매일신문사
- 참가자격 및 부문 : 전라북도 내 청소년 동아리/댄스
- 문의 : 063-288-9700